

# 포천우체국 서비스현장 선포식

## 직원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직무 반영

포천우체국은 지난 4일 우체국서비스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02년부터 우체국서비스현장을 제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객들에게 공표하고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현장을 개칭, 지난 7월 3차 개정(안)이 확정되어 우정사업본부 출범 6주년 기념식에 맞춰 실시했다.

포천우체국은 6주년을 기념해 6번째와 66번째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20kg쌀을 사은품으로 증정하

고 고객 300명에게 톨팩과 여행용 세면용품 세트 등을 제공했다. 또 이날 하루동안 우체국을 찾는 고객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우체국서비스현장 유인물 500매를 배포했다.

우체국은 지난 80년대부터 친절 봉사, 고객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선직원의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왔으며 그결과 국가고객만족도 공공행정부문 5년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주관 태백부문 2년연속 1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천우체국 서비스현장 이행기준

은 우리는 단 한통의 우편물도 소홀한 없이 정중하게 다루고 우편물 송달기일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하겠다고 기록 취급우편물의 분실,파손,지연의 경우 규정에 따라 등기는 10만원, 소포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 등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서비스현장 이행표준은 친절한 고객응대가 생활화 되도록 매일 20분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등 18가지를 제시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우체국은 지난 4일 우체국서비스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포천소방서는 지난 4일 소방방재청과 함께 포천시 동교동 상계마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상계마을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소방방재청 안전취약마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7월 4일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과 포천시 상계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고 체계적인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5일 포천시 상계마을에서 사람의 안전복지 릴레이 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4일 다시 상계마을을 방문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했다.

첫 서비스 실시지역인 상계마을은 포천시 동교동 4동 685번지 일대 76가구 12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 어린이와 노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각지대다.

지난7월5일 사람의 안전복지 릴레이 활동을 전개한 포천시 상계마을을 다시 방문해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마을주민 총76세대중 잔여대상으로 ▶세대별 안전컨설팅 실시-시설·전기·가스 등 총체적 안전점검,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요인 현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노후전기, 가스설비 정비 및 교체-노후전기배선, 누전차단기 등 교체 정비, 가스배관, 차단기 등 가스위험시설 교체 및 정비 등 ▶회계 안전점검 및 단독형 화재 경보기 설치 ▶비상연락망 부착 ▶기 실시한 세대 대에 대한 변동사항 관리: 관리카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목회단상

## 소음속의 고독(孤獨)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음은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주말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 교외(郊外)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런 곳은 역시 고독의 인과를 만나고 만다.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면 현대인이 아니라"는 말처럼 고독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는 교포의 가정문제들은 대부분 그 뿌리에 고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UCLA의 심리학교수 로저 고울드 박사는 성인의 발달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16~17세는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도망의 시기" ②18~22세는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찾는 "탐색의 시기" ③23~28세는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투쟁의 시기" ④29-34세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회의의 시기" ⑤35~43세는 초조와 위기를 느끼는 "불안의 시기" ⑥44~50세는 정신 없이 달려온 과거를 비로사 돌아보는 "반성의 시기" ⑦60세 이상은 나를 알고 나와 너의 관계를 알게되는 "성숙의 시기"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과정이 인간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고울드 박사는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인 것은 고독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독을 얼마큼 건설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색 있는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이 지어지는 것이다.

고독은 주정꾼을 만들 수도 있고 예술가를 만들 수도 있다. 자살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봉사하고 싶은 기회로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람을 발광하게도 하지만 차분히 생각하게도 만드는 것이 고독이다. 고독의 늪으로 빠져 영원히 불행의 마침표를 찍느냐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고독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

고독 속에서 대화의 입을 막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이사야서 1장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중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하신다.

문의) 031-532-2489



김형성 나촌교회 목사

## 제12기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위촉식

포천시협의회, 5.31 지방선거 당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8월3일 오전11시 포천시청 국제회의장에서 5·31지방선거 당선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종희)는 8월3일 오전 11시 포천시청 국제회의장에서 5·31지방선거 당선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장 접수자는 박윤국 포천시장이며 위촉장 접수자는 경기도회의원 이우형, 이주석, 포천시의회 이강림 강태선 정종근 김중천 이병욱 김성남 이종호 김영자의원 등이다.

위촉장 접수, 자문위원 윤리강령 낭독, 협의회 임원소개, 협의회장 인사, 포천시청 축하, 포천시의회 회장 축하, 오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는 이종희 협의회장과 이영욱 부회장 등과 포천시와 의회 간부공무원등 20여명이 배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뽕, 혁신업무 유공자 표창수여식

포천경찰서(서장 김종해)는 8월1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실적 우수자인 수사과 박용운 경사 등 8명에 대해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인 수사과 박용운 경사 등 5명은 기능별 업무실적(반기 실적) 우수로, 이동파출소 경장 신명관 등 4명은 중요범 검거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동파출소 신명관 경장 등 2명은 교통사고 야기 후 기소중 지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비번 일에도 경기 양평 일대를 탐문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종해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각각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최고의 치안서비스 창출"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8월1일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실적 우수자인 수사과 박용운 경사 등 8명에 대해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포천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소방방재청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가 물놀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인근의 여름철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포천시의 백운계곡, 한탄강, 깊이울저수지, 열두개울, 영평천 등지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포천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천소방서, 시민안전봉사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과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시는 피서객들에게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지 말기 ▶안전지역이라도 물놀이 할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하기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기 ▶안전장비와 구급약품 준비 ▶식사 후, 특히 음주 후 수영금지 ▶물놀이 이전 준비운동하기 ▶물이 얇고 물살



소방방재청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가 물놀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없는 안전 지역에서만 물놀이 하기 등의 각종 안전수칙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위험지역 현수막 설치 및 순찰활동 강화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인명사고 우려 지역 내 바위 제거 ▶전문가를 통한 물놀이 사고 요인 제거 ▶물놀이 안전포지판 추가설치 등의 특별대책을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보훈문화 건강교실 보훈가족 행복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 포천 보훈가족 대상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7월28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4개 보훈단체 주관으로 보훈문화건강교실을 운영했다.

보훈문화건강교실에 참석한 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20명은 포천시 여성회관 레크레이션 정인숙 강사의 건강강좌와 노래교실로 오랜만에 해맑은 웃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수줍은 율동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하고 있는 삼우석재 강수동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보훈가족 15명에게 TV 등 가전제품 1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의정부보훈지청은 잠시 농사 일로, 집안 일로 지친 보훈가족이 행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7월28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4개 보훈단체 주관으로 보훈문화건강교실을 운영했다.

복해 질 때까지 더욱더 알찬 내용의 보훈문화교실을 열어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찰혁신의 바람직한 모습'

포천경찰서 무궁화 포럼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종해)는 8월8일 경찰서 강당에서 경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혁신을 위한 무궁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진대학교 법학과 소성규 교수는 '경찰 혁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혁신의 필요성과 행정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혁신 사례를 들면서 ▶일어서자▶변화하자▶미소짓자▶고객을 위한 변화하는 조직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 아무리 좋은 사책이 있어도 조직원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며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 관리 및



포천경찰서는 8월8일 경찰서 강당에서 경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혁신을 위한 무궁화 포럼을 개최했다.

학습과 실천의 조화 속에서 주민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의 실천임을 강조했다.

김중해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협업 중심의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공감 받는 업무처리를 통해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정병윤 사회복지과장 전상미망인 방문

의정부보훈지청 지역사회 관심과 예우 분위기 조성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포천시 사회복지과장(정병윤)과 함께 서정희 무의탁 전상미망인자택을 방문해 배비세트와 위문금을 전달했다.

포천시 정병윤사회복지과장은 열악한 서정희 미망인의 거주실태를 살펴본 후 "조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줄은 몰랐다"

는 말과 함께 "지역에 뜻 있는 분들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이동보훈팀 운영지역 자치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한 보훈가족 사랑의 릴레이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고 계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우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은 서정희 무의탁 전상미망인자택을 방문해 배비세트와 위문금을 전달했다.